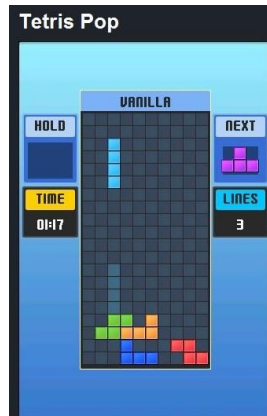


※ 언어적 해석에서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차이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언어적 해석에 실패하는 원인은 조금 다르다. 단어(의미)가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과 블록

문과 학생은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모양(의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한다. 마치 테트리스의 다양한 모양의 블록과 같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섯 가지의 테트리스 블록이 있다. 알다시피 테트리스는 여러 모양의 블록을 모양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하려면 먼저 블록이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쌓여 있는 아래쪽 더미의 모양을 생각한다.



이과 블록

이과 학생은 단어의 의미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벽돌과 같다. 그래서 단어를 만나면 한 가지 의미만 떠올린다. 늘 같은 모양, 같은 크기여서 다른 벽돌과 같이 쌓아 올렸을 때 한치의 오차가 나지 않는 것이 미덕인 벽돌처럼 생각한다.

단어가 쌓이면 글이 된다. 그렇다면 블록을 쌓으면?

문과 학생의 블록 쌓기 - 테트리스

문과 학생은 이과 학생보다는 문학과 비문학 인문 지문 읽기에 능숙하다. 왜냐하면 문학이나 비문학 인문 지문을 읽을 때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모양의 테트리스 블록을 짜임새 있게 쌓는 것처럼 문학이나 비문학 인문예술키문은 맥락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단어에 부여된 의미를 생각해서 개념적 사고, 추상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과학기술 지문은 과학 이론으로 과학 현상을 설명하거나 기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데, 단어의 의미보다는 글 전체 내용이 묘사하는 상(model)이 중요하다. 문과학생은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서 단순한 단어가 쌓여 있는 과학기술 지문의 전체 내용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워한다.

이과 학생의 블록 쌓기 - 벽돌 쌓기

과학기술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추상적이지 않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그런 단어들이 묘사하는 상(model)을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학과 인문예술키문은 이과 학생이 읽기에 이상하다. 벽돌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양을 고려해서 여기 저기로 보내야 한다니, 아 이런 OTL...



2. 상황 구성 실패

- 전체를 보지 않는다? 아니, 전체를 예측하지 않는다.

☞ 언어적 해석을 통해 알게 된 것에서 글 전체의 상(model)을 그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언어적 해석을 통해 작품에서 알게 된 정보를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자. 퍼즐을 맞추는 때 퍼즐 하나를 보면서 원 그림(상자에 그려진)을 통해 전체 모양을 생각하고, 퍼즐 하나가 전체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가? 보통 퍼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모서리 조각을 찾는다. 그런 다음 테두리 조각들을 찾는다. 그래서 전체의 테두리를 완성한다. 그런 다음 테두리 조각과 이웃한 조각을 찾는데, 이때 조각에 그려진 그림을 본다. 그림의 색깔을 보고 비슷한 색깔끼리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언어적 자료 하나를 볼 때마다 글 전체의 상을 생각해서 그것이 다른 언어적 자료와 함께 작품이 다루고 있는 상황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글 전체의 상황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